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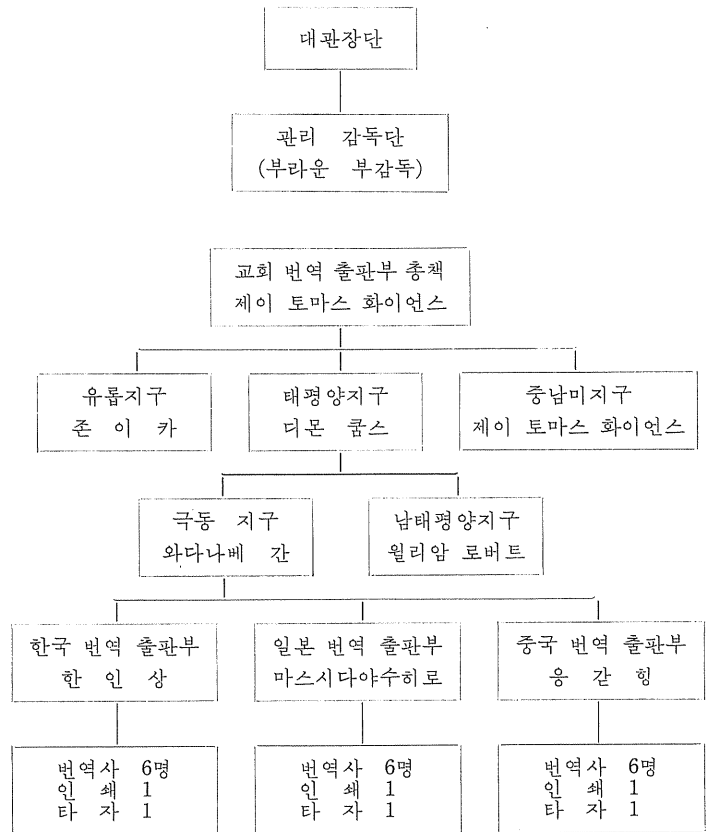
한국 번역 출판부가 만들어지기까지

1833년 3월 8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 하신 교리와 성약 90편 11절—그날이 이르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위하여 저들에게 임하실 성신의 관리로서 성임되어 이 권능을 받은 자를 통하여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방언으로 충만한 복음을 듣게 되리라. —의 말씀은 다니엘의 꿈이 실현되어가는 말일에 더욱 커다란 책임을 느끼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대관장단에서는 이러한 뜻을 관리 감독단에 지시하였었습니다. 이에따라 관리 감독단의 부라운 부감독과 총책으로 임명된 화이언스 형제께서는 지난 10월 22일 한국에 오셔서 이러한 뜻과 조직에 착수 할 것을 지시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후 2월 20일 인쇄에 관한 실무물간 형제께서 오셔서 성도의 벗의 체계를 바꿈에 따른 구체적인 것을 지시하시면서서 인쇄소도 옮길것을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3월 18일에는 태평양지구 책임자 콥스 형제와 부라운 감독, 화이언스 형제가 오심으로 한국 번역 출판부로 이름을 받은 선교부의 번역부는 관리 감독단이 계획하는 도서만을 번역하게 이룬 것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국동 책임자와다나베 형제가 한국에 오셔서 국동의 번역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었으며 3월 1일부터 관리 감독단의 지시를 받게됨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번역 출판부 조직표와 한국 번역 출판부와 관계된 분들과 번역부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의 사진을 실습니다.

번역 출판부 조직표



【사진설명】

앉은분들 좌로부터 콥스 형제, 화이언스 형제, 부라운 감독, 팔마 자매, 팔마 선교부장, 윌즐 홍 무광 형제, 정 대관 형제, 최 장순 자매, 이 숙자 자매, 정 신자 자매, 한 인상 형제, 전 중철 형제, 황 중섭 형제가 사진에서 빠졌습니다.

作業의 연결

한 인 상 형제

선지자 요셉은 그가 처음으로 福音의 회복을 외칠때 그當時를 열 한번째 시간이라 했다. 그때로부터 백 삼십년 이 지난 지금은 過然 몇 번째 시간일 것인가?

韓國에 教會 翻譯部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 必要를 直接 大管長團 以下 全 管理 役員이 강조하며 따라 새로이 韓國에도 獨立的인 翻譯 出版部를 組織했을 때, 나는 거기서 제일 먼저 바로 目前에 임한 來日의 모습을 본 것이다. 교리와 성악 30편 11절에는, 말일에 세상 모든 백성들이 각기 저들의 言語와 文字로 福音을 듣게 된다고 되어있다. 이 세상에 130년이란 歲月이 지난 지금 열 한번째 시간은 어디 쯤으로 미끌어져 온 것일까?

또 하나의 作業이 큰 비중으로 안겨진 것이다. 한 치도 물러 설 수 없다는 다부진 마음뒤로 나태하고 싶어하는 허영이 지나는 걸 본다. 결국은 作業의 연결일 뿐이다.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以後 어차피 人間은 이마에 땀을 흘려 먹어야 했고 구원이 약속된 고된 作業을 해내야 했던 것이다.

× × ×

하루 아침에 나는 모든 것에서 제외된 모습의 나를 發見했던 일이 있었다. 自專心과 所望을, 그리고 그보다 더한 삶의 뜻을 던져버려야 했던 그날 이후 나는 내 주변과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했고 열망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전혀 存在할 수 없는 거라는 스스로 定義한 否定的인 상황에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서 전해듣고 나는 잠을 잤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참 모습과 뜻을 배웠고 그 福音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要求가 作業으로 연결되었을때 나는 비로서 고향지르고 싶은, 가슴으로 부들하게 메어오는 그런 충족과 보람을, 그리고 세상엔 없는 것으로 알았던 기쁨과 행복을 허가 받았던 것이다.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강렬한 바람이 온통 작은 나의 가슴을 통탕거리게 한다.

난 다만 福音의 빛세지를 읽으므로써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始作하게 되리라는 걸 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앞에 제시된 作業으로 向하는 각오와 자세를 거듭 매만져 무장하는 것이다. 사무실에는 함께 일하기로 약속을 나눈 여러 兄弟 姉妹가 있다. 위급한 때 까지를 위해서 있게된 兄弟요 또 姉妹로의 그 유대를 바로 認識하여 韓國의 全 聖徒가 함께 祈禱하고 일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任務를 어김없이 이행하고 싶다. 그리하여 시시 각각으로 닦아오고 있는 最後의 심판의 날을 준비함에 있어서 나는 특히 내게 맡겨진 번역사로의 作業의 일익을 충실히 이행하고 싶은 것이다.

× × ×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동화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아이가 자기는 안멜센 동화책에 실린 이야기가 제일 재미 있다고 했다. 한 아이는 방정환 선생의 이야기가 제일 이라고 했고, 또 어떤 아이는 강 소천 선생의 글이 더 좋다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는, “난 우리 엄마가 전해주는 이야기면 누구의 것이든지 제일 좋고 또 제일 재미있더라!”고 하는 것이었다.

엄마가 전해주는 이야기! 사랑과 이해와 아니, 모두를 갖고계신 엄마가 이야기를 전했을 때의 그 포근함을 그리고 그 절박함을 대신할 수 있는 글이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난, 아니 나의 소망은 엄마같은 전달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 그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런지는 아직 나는 모른다.

지금으로부터 130年前에 느끼던 마지막 날에의 느낌과 오늘 그것은 分明히 달라야 한다. 오늘 우리는 모두 위기를 살아가고 있다. 횡포한 多數가 짓밟고 지난 폐허위에서 일망정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必要한 준비를 게을리 할수는 없다. 교회의 번역 사업이 번역 출판 그것에만 의미를 갖고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읽어 습득하고 그러므로서 바르게 生活하게 된다고 하는 全體的인 의도와 계획을 충분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 여름은 지났고 또 추수는 끝났어도 나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노라는 탄식의 노래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울리지 않아야 할것이다. 모든 성도와 더불어 새로운 용기와 간증을 갖고 앞으로 달려가고 싶다.

동 부 지 부



지난 3월 21일 동부지부에서는 모의 결혼식이 있었다. 상호 향사회 주최로 6시 30분부터 상호 향사회 홀에서 있었던 모의 결혼식은 교회의 결혼 의식과 의의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선전 결혼에 따른 문제를 설명했던 것으로 동부지부 상호 향사회는 이 모임을 갖기위해서 한달을 준비했다고 했다.

김 양선 형제와 배 정임 자매가 모델이 되어 주었던 이날의 의식은 지부장 전 중철 형제의 주례로 이루어 졌었다.

민속무용을 활동시간으로 가졌던 동부지부 상호회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많은 회원이 함께 활동하는데 의의를 두었다고 했다.

아론신권 특별 모임

1968년도 아론신권 회복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 하오니 아론신권을 소유한 분들과 침례를 받고 아직 신권을 받지못한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중앙지방부

장소 : 선교본부

일시 : 1968년 4월 11일 (토요일)

2:30~3:30 운동

3:30~4:00 보물찾기와 줄다리기

4:00~5:00 권투경기 시범 (해설 리차드 보비)

5:30~6:30 저녁 식사

7:00~8:00 오락활동

8:00~8:30 선교부장 말씀

※ 주일 모임은 각 지부 단위로 있습니다.

남부지방부

장소 : 부산지부

일시 : 1968년 5월 11일~12일

배 일문 시 당선작 발표와 백일장에 관한 광고

1967년 6월호 성도의 벗에 광고한 제2회 배 일문 시 현상모집은 당선작이 없어 1968년 2월말까지로 다시 공고한 바 있었읍니다만, 응모분을 심사한 결과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성도의 벗에서는 중앙 지방부 산하 회원을 한자리에 모시고 백일장을 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기성 시인 한 분을 모셔서 한 시간 가량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응모된 작품은 일체 무효가 되며 응모된 작품은 반환치 않겠습니다.

대상 : 침례를 받은 말일성도 이어야 합니다. (참석은 구도자도 무방함)

일시 : 1968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선교부 강당

주제 : 말일 성도 교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

응모요령 : 시작 10분 전까지 응모자는 등록을 필해야 함.

원고지는 성도의 벗에서 준비 하겠음.

부상 : 1등 (1명) 가죽표지 물문경 1권, 성도의 벗 1년분과 1000원

2등 (1명) 가죽표지 물문경 1권, 성도의 벗 1년분

3등 (1명) 성도의 벗 1년분